

201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

B 형

성명

수험 번호

2

1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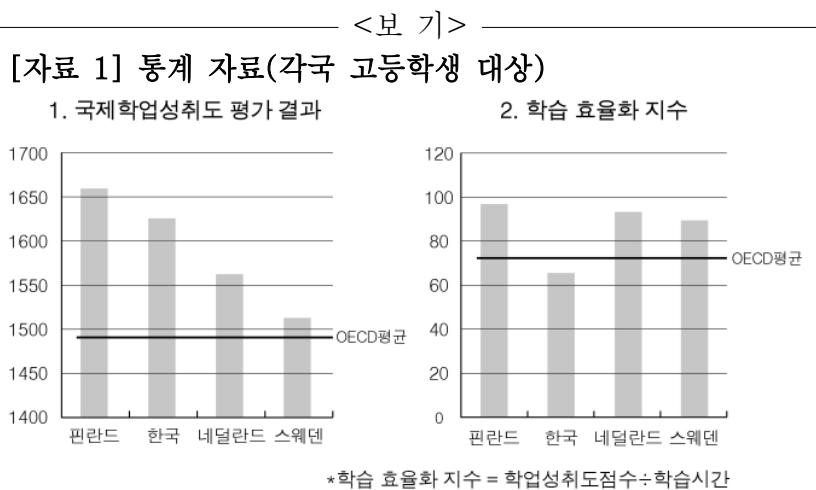
1.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안목'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연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숲 속에 해가 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파란색이야. 숲 속 친구들은 늘 부지런해."

숲 속에 해가 졌습니다.
밤 늦게 일어난 부엉이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검정색이야. 숲 속 친구들은 늘 잠만 자고 게을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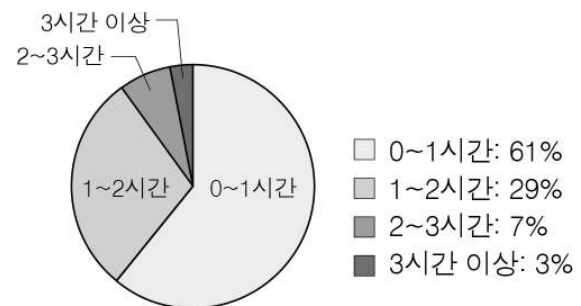
- ① '나'와 '너'가 서로를 아끼고 희생해야 세상을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
- ② 내가 본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세상의 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
- ③ 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보아야 많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
- ④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아름다운 세상만을 볼 수 있다.
- ⑤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 <보기>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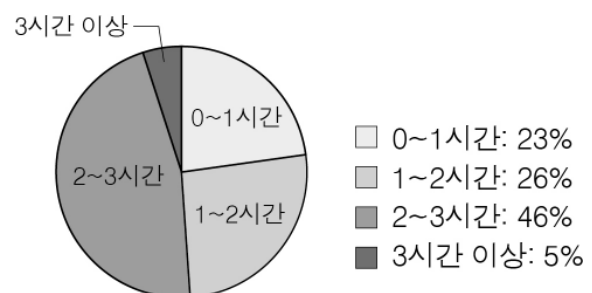


[자료 2]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

1. 1일 평균 자기주도 학습 시간



2. 1일 평균 학원 수강 및 과외 교습 시간



[자료 3] 연구 자료

1. 고등학생 때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대학 입학 이후 학업 수행 능력이 높은 데 비해 사교육에 의존했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2. 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에 비해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학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많고 학습 효율성도 높음.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율성은 낮은 실태를 지적한다.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전체 학습 시간 중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비중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③ [자료 1]과 [자료 3]을 활용하여,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한다.
- ④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대학 입학 이후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 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외국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이 지닌 장단점을 분석한 후, 이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3. <보기>는 ‘천연기념물 소나무 보존 대책’에 대한 건의서를 쓰기 위하여 작성한 개요이다. 이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집필 동기: 지역 명물인 천연기념물 소나무의 훼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함.

I. 서론 (ㄱ)
- 천연기념물 소나무의 가치

II. 천연기념물 소나무 훼손의 원인

1. 자연적 측면
 - 가. 진딧물 등의 병해충
 - 나. 낙뢰, 폭설 등의 자연 재해
2. 인위적 측면
 - 가. 천연기념물 소나무에 대한 관리 업무 분산
 - 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 환경 악화
 - 다. 문화유산 안내인의 부재 (ㄴ)

III. 천연기념물 소나무 보존 대책

1. 자연적 측면
 - 가. 천연기념물 소나무 관리 업무 일원화 (ㄷ)
 - 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2. 인위적 측면 (ㄹ)
- 가. 진딧물 등 병해충 퇴치를 위한 방제 작업 (ㄱ)
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보호 구역 확대

IV. 결론

- 우리의 전통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의 중요성 ... (ㅁ)

- ① 집필 동기를 고려하여 (ㄱ)에 ‘천연기념물 소나무 훼손 실태’라는 항목을 추가해야겠어.
- ② (ㄴ)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③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ㄷ)과 (ㄱ)을 맞바꿔야겠어.
- ④ ‘II-2’와 ‘III-2’의 관계를 고려하여 (ㄹ)에 ‘소나무 주변 조경 사업 확대’라는 항목을 추가해야겠어.
- ⑤ 화제의 범위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ㅁ)은 ‘천연기념물 소나무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 촉구’로 고쳐야겠어.

4. <보기>의 상황과 조건에 가장 적합한 표현은?

- <보 기>
- 상황: 동아리 답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불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동아리 회장에게 전자 우편으로 보내려고 한다.
- 조건
- 자신의 미안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것
 -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 도치법을 사용할 것

- ① 영희야, 어떤 일이 생겨서 답사 활동에 참가하지 못할 것 같아. 이해해 줘, 내 사정. 미안.
- ② 영희야, 나 답사 못 갈 것 같아. 그때 가족 모임이 있나 봐, 할머니 댁에서. 아빠께서 할머니 댁에 꼭 가야한대. 정말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 동아리 답사.
- ③ 영희야, 난 답사 가기 힘들 것 같아. 사촌 언니 결혼식이 있다고 엄마께서 말씀하시지 뭐야. 나랑 정말 친한 언니라 안가면 언니가 서운해 할 거야. 괜찮지?
- ④ 영희야, 어떡하지? 답사 가기로 한 약속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 그때가 엄마 생신인 걸 깜빡했지 뭐니. 딸 노릇 좀 해 보려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넌, 착하니까.
- ⑤ 영희야, 사실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해서 차마 못했어. 동아리 답사 못 갈 거야. 네가 동아리 활동 불참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이번엔 나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해.

5. <보기>는 말하기 수업 시간에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의 보관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초고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포토프린터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쉽게 인쇄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을 잘못 관리하면 사진이 변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이 변색되는 주된 이유는 자외선, 오염 물질, 습기, 고온 때문입니다.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이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이물질에 오염되면, 인화지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 사진이 전체적으로 탈색되면서 흐려 집니다. ㉡ 하지만 사진이 습도가 높은 곳에 장기간 ㉢ 방치되어지면, 인화지에 있는 미세한 색소들이 번지면서 색깔이 ㉣ 바라게 됩니다. 특히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온도가 높으면 앞에서 설명한 반응들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을 보관할 때는 자외선, 오염 물질, 습기, 고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좋은 포토프린터를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추억을 잡아 둔 아름다운 사진을 오래도록 두고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① ㉠: 설명할 내용에 맞게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들’로 고친다.
- ② ㉡: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그리고’로 바꾼다.
- ③ ㉢: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방치하면’으로 바꾼다.
- ④ ㉣: 문맥에 맞게 ‘바라게’로 고친다.
- ⑤ ㉤: 글의 주제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6. <보기>에 언급된 선생님의 지시를 따른다고 할 때, ㄱ~ㄴ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 <보 기> ————

어휘의 의미는 몇 가지 의미 자질로 분석할 수 있어요. 예컨대 ‘바지’의 의미는 [+옷], [-위]의 자질로 나눌 수 있죠. 이에 반해 ‘저고리’의 의미 자질은 [+옷]이라는 점에서 ‘바지’와 같지만, [+위]라는 점에서 ‘바지’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표의 ㄱ~ㄴ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ㄱ	ㄴ	ㄷ	ㄹ
어른	+	-	+	-
남성	+	+	-	-

- |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 아저씨 | 소년 | 아주머니 | 소녀 |
| ② | 아저씨 | 아주머니 | 소녀 | 소년 |
| ③ | 아주머니 | 소년 | 아저씨 | 소녀 |
| ④ | 소년 | 소녀 | 아주머니 | 아저씨 |
| ⑤ | 소년 | 소녀 | 아저씨 | 아주머니 |

7. <보기>를 참고하여 연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선물을 {사느라고} / *샀느라고} 돈을 다 썼다.
ㄴ. 눈이 그치거든 네가 {떠나라 / *떠난다}.
ㄷ. 책을 읽고자 도서관에 {갔다 / *가라}.
ㄹ. 나는 철수를 만나려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ㅁ. *나는 철수를 만나려고 그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을 통해, ‘-느라고’는 특정 시제와의 결합에 제약이 따름을 알 수 있군.
- ② ㄴ을 통해, ‘-거든’이 사용되면 뒤 절에 평서형 종결어미의 사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군.
- ③ ㄷ을 통해, ‘-고자’가 사용되면 뒤 절에 명령형 종결어미의 사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군.
- ④ ㄴ과 ㄷ을 보니, ‘-거든’과 ‘-고자’가 사용되면 뒤 절의 서술어에 추측의 의미가 더해짐을 알 수 있군.
- ⑤ ㄹ과 ㅁ을 보니, ‘-려고’를 사용하려면 앞 절과 뒤 절의 주어 를 일치시켜야 함을 알 수 있군.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준말은 어떤 어형에서 음절의 수가 줄어들어 형성되는데, 모음의 탈락과 축약은 준말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모음탈락은 준말을 형성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이다. 모음의 탈락은 필수적인 경우와 수의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크- + -어 → 커(*크어), 가- + -으니 → 가니(*가으니)’에서의 ‘커, 가니’는 필수적인 모음탈락에 의해 형성된 준말인 반면 ‘고을 → 골’, ‘싸움 → 썸’은 필수적인 모음탈락이 아니라 수의적인 모음탈락에 의해 형성된 준말이다.

필수적인 모음탈락과 수의적인 모음탈락 중 수의적인 모음탈락만이 줄어든 음절에 대한 장모음화를 수반하며, 준말의 형성에 관여한다. 필수적인 모음탈락에 의해 만들어진 어형은 준말로 인식되지 않는다. 어떤 어형이 준말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본말이 음성형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에서 예를 든 ‘크- + -어 → 커, 가- + -으니 → 가니’에서의 모음탈락은 필수적인 것이어서 본말이라고 할 수 있는 ‘크어’, ‘가으니’가 음성형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① 모음탈락에 의해 준말이 형성될 때 그 모음탈락이 두 모음이 직접 연결될 때의 모음충돌 회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고을 → 골’, ‘싸움 → 썸’과 같은 준말 형성 과정에서 어떤 두 모음이 직접 연결되게 되었을 때 모음충돌 회피의 일환으로 두 모음 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 장모음화를 수반한다. 하지만 ‘서투르다 → 서툴다’, ‘가지다 → 갖다’와 같은 준말 형성 과정은 모음충돌 회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모음탈락은 음절 수의 감소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장모음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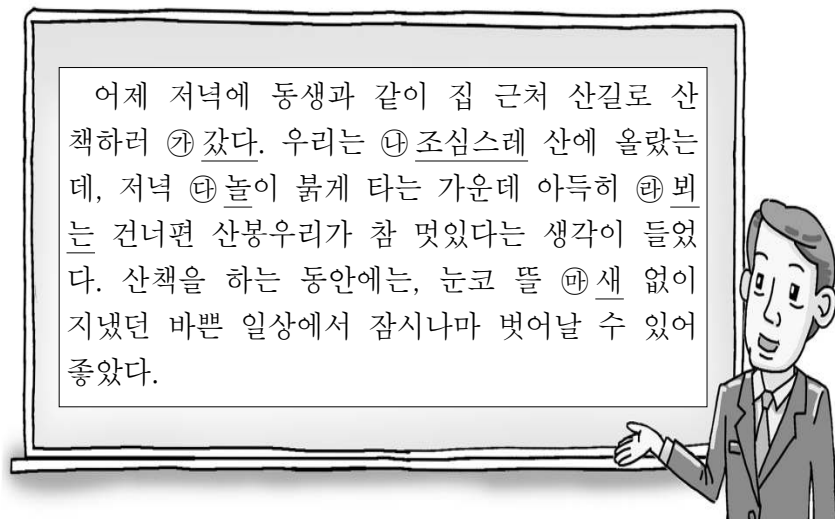
어떤 두 모음이 결합하여 그 두 모음과는 다른 제 3의 모음이 될 때에는 모음축약이 이루어진다. 두 모음이 결합하여 한 모음이 되었으므로 자연히 모음의 수가 하나 줄게 된다. 음절 수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어형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나면 준말이 형성된다. ‘짜임새 → 켜:새’, ‘사나이 → 사내’는 체언 내부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난 경우이고 ‘쏘이다 → 췌:다’, ‘누이다 → 뉘:다’는 용언 내부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난 경우이다. 용언 어간에서의 이러한 모음축약은 사동사, 피동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새삼스러이 → 새삼스레’, ‘갑작스러이 → 갑작스레’는 파생어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난 경우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음축약은 주로 수의적이고 어두 위치에서 일어난 모음축약만 장모음화를 수반한다.

*: 비문법적임을 나타냄

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필수적인 모음탈락에 의한 어형은 준말로 인식된다.
- ② 모음축약에서는 제 3의 모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 ③ 수의적인 모음탈락은 줄어든 음절에 대한 장모음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 ④ 모음축약은 용언의 내부뿐 아니라 체언의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 ⑤ 모음충돌 회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음탈락도 음절 수의 감소를 초래한다.

9. 다음은 '준말'에 대한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위 글로 미루어 보아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어제 저녁에 동생과 같이 집 근처 산길로 산책하러 ㉠ 갔다. 우리는 ㉡ 조심스레 산에 올랐는데, 저녁 ㉢ 놀이 붐게 타는 가운데 아득히 ㉣ 보이는 건너편 산봉우리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책을 하는 동안에는, 눈코 뜰 ㉤ 새 없이 지냈던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어 좋았다.

위 글에서 ㉠의 본말은 음성형으로 실현되지 않는 '가왔다'이고, ㉡의 본말은 '조심스러이'라는 파생어입니다. ㉢는 모음충돌 회피에 의해 만들어진 어형으로, 본말은 '노을'입니다. 그리고 ㉣의 본말은 '보이는'이며, ㉤의 본말은 '사이'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어떤 점을 알 수 있을까요?

- ① '갔다'의 본말이 음성형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갔다'는 수의적인 모음탈락에 의한 어형입니다.
- ② '조심스러이'가 '조심스레'로 줄어든 것은 파생어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난 것으로, 장모음화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 ③ '노을'이 '놀'로 줄어든 것은 모음충돌 회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놀'은 [놀:]로 발음됩니다.
- ④ '보이는'이 '보는'으로 줄어든 것은 용언 내부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난 결과로, '보는'은 [보:는]으로 발음됩니다.
- ⑤ '사이'의 준말인 '새'는 모음축약에 의해 만들어진 어형으로, '새'는 [새:]로 발음됩니다.

10. <보기>의 ㉠~㉥ 중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 천 경험하는 학교 축제 기간이다.
(← 처음)

㉡ 옛그저께 우리는 우리 반 ㉢ 애들이 준비한 사진 전시회에
(← 어제그저께) (← 아이)

갔다. ㉣ 맡에 드는 사진이 참 많았는데, 전시된 사진 밑에는
(← 마음)

㉤ 갖가지 꽃들이 놓여 있어 사진전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 가지가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수긋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벼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데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A]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향(香)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
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력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
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
심에 뉘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
끈당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
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
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
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
가자 ㉢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다)

한겨울 못 잇을 사람하고

한계령썰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㉔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㉔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청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 경험으로부터 얻은 삶의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의 ㉔와 ㉕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바르게 고른 것은?
- _____ <보 기> _____

(가)와 (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독특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가)는 명령의 형식을 빌려 [㉔]하듯이 드러내고, (나)는 청유의 형식을 빌려 [㉕]하듯이 드러내고 있다.
- | | | | |
|------|----|------|----|
| ㉔ | ㉕ | ㉔ | ㉕ |
| ① 간청 | 설득 | ② 회유 | 제안 |
| ③ 간청 | 청탁 | ④ 회유 | 설득 |
| ⑤ 간청 | 강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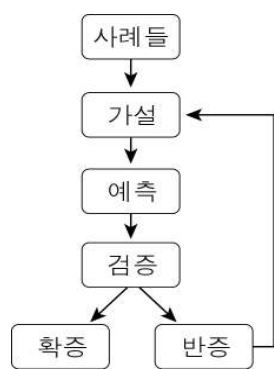
13. <보기>는 [A]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_____ <보 기> _____

시인은 ‘밀다’ → ‘내어 밀다’ → ‘아주 내어 밀다’ → ‘밀어 올리다’와 같이 서술어구를 반복,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 효과를 얻고 있다.
- ① 화자의 감정이 점차 고조됨을 부각하는
 - ② 다양한 곳으로 독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 ③ 공간적 배경이 점차 이동되어 감을 보여주는
 - ④ 시상을 갑작스럽게 전환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 ⑤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시간적 흐름을 역전시키는
14. ㉔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는 체념적 어조로 한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② ㉔는 청자가 각성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㉔는 역동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㉔는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㉔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어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_____ <보 기> _____

시어의 의미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다른 시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둠’이라는 하나의 시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절망’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평온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 ① ‘폭설’은 ‘만나고 싶다’와 관련지어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② ‘자동차들’은 ‘법석이지만’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③ ‘고립’은 ‘눈부신’과 관련지어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④ ‘동화의 나라’는 ‘묶였으면’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⑤ ‘헬리콥터’는 ‘포탄’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 이론들은 대체로 가설연역법으로 확립된 것이다. 가설연역법은 귀납과 연역의 원리를 활용하여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대표적인 추론 방법이다. 귀납은 이미 알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이므로,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두 옳을지라도 결론이 반드시 옳지는 않은 속성이 있다. 반면 연역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명제를 전제로 삼아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므로, 전제가 옳다면 결론은 반드시 옳은 속성이 있다.



가설연역법은 귀납과 연역을 연계하여 가설을 ㉠ 설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중국에 서식하는 까마귀는 검다.’라는 사실에서 연구자가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자.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낸 귀납 추론이다. 이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까마귀를 관찰하여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 명제가 참인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명제를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삼아 ‘미국에 서식하는 까마귀는 검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예측’을 연역 추론으로 이끌어낸다. 가설은 일반적인 명제이므로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예측은 그에 비해 구체적인 사실이므로 진위를 알아내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관찰, 실험과 같은 경험적인 방법으로 예측의 진위를 알아보는 것을 ‘검증’이라고 한다. 미국에 서식하는 까마귀를 검증한 결과 흰 까마귀가 존재한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가설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므로 연역의 속성상 가설은 논리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를 가설이 ‘반증’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가설은 틀린 것이므로 연구자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편, 예측을 검증한 결과가 참이라면 가설은 더욱 믿을 만한 것이 된다. 이를 가설이 ‘확증’되었다고 하는데, 확증은 가설이 옳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단지 가설이 옳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확증은 가설의 일부분, 즉 예측만이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가설의 나머지 부분도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보편타당한 지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확증이 된 가설을 전제로 삼아 가능한 많은 예측들을 하고 다양한 조건 속에서 검증을 한다. 이것들이 전부 참으로 확정되어야 가설은 비로소 학문적인 진리성을 지닌 ‘이론’이 된다.

가설연역법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탐구 방법이다. 대부분의 자연과학 이론은 이러한 가설연역법을 바탕으로 성립했으며, 오늘날에는 사회과학에서도 유용한 학문적 탐구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가설을 도출한 추론 원리 자체에 이미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설에서 이끌어낸 학문적인 이론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물과 현상을 대할 필요가 있다.

16.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연역법의 개념은 무엇인가?
- 귀납과 연역의 어원을 중심으로
- ② 가설연역법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 귀납과 연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 ③ 가설연역법은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
- 귀납과 연역의 성과를 중심으로
- ④ 가설연역법의 논증 과정은 어떠한가?
- 귀납과 연역의 추론 원리를 중심으로
- ⑤ 가설연역법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
- 귀납과 연역의 절충 방안을 중심으로

17. <보기>가 ‘가설연역법’에 따라 쓰인 글이라고 할 때,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 반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살다온 아이들이 많다. ㉠ 그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 외국에서 살다온 아이들은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언어에 능숙한 것 같다. ㉢ 따라서 프랑스에서 살다 온 옆 반 아이들은 불어를 잘할 것이다. ㉣ 내일은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의 불어 실력을 알아봐야겠다.

- ① ㉠가 참이라도 ㉡가 참이 아닐 수 있겠군.
- ② ㉡가 참이면 ㉢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③ ㉢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부터 검증해야겠군.
- ④ ㉣가 거짓이라면 ㉠가 반증되는 것이겠군.
- ⑤ ㉤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예측의 진위를 알아보는 과정이군.

18.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설연역법을 사용하여 추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설 설정의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 ① 다양한 예측을 하고 그것을 모두 참으로 확증해 본다.
- ② 가능한 많은 사례들을 근거로 삼아 가설을 설정한다.
- ③ 가설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본다.
- ④ 가설을 바탕으로 명확한 예측을 한다.
- ⑤ 예측에 대한 검증을 정확하게 한다.

19. ㉠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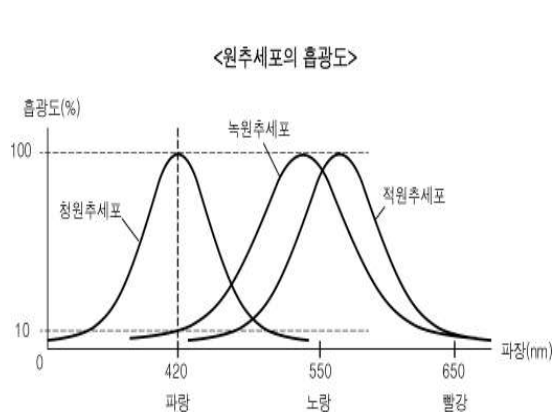
- ① 널리 베풀어 줌.
- ② 뜻을 풀어서 밝힘.
- ③ 새로 만들어 정해 둌.
- ④ 예전의 일을 다시 들추어 냄.
- ⑤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모두 갖추.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은 무수히 많다.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뛰어난 색상 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다양한 색깔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입자이면서 파장의 속성을 띠는 빛이 망막을 자극하게 되면서 인간은 빛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망막에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라는 두 시세포가 있다. 이중 막대 모양의 간상세포는 명암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원뿔 모양의 원추세포는 색깔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원추세포에서 감지한 색깔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인 일련의 과정에 따라 뇌로 전달된다. 원추세포에는 ‘옵신’이라는 수용체 단백질이 들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세포 내로 투과된 특정한 색깔을 띠는 빛 입자인 광자와 충돌하게 되면서 모양이 변한다. 모양이 변한 수용체 단백질은 이웃한 G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G단백질의 일부가 세포 안에 있는 효소를 자극하게 된다. 그러면 효소는 평상시에는 세포 밖으로 열려 있던 Na^+ (나트륨 이온) 채널에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 통로를 닫도록 명령한다. Na^+ 채널이 닫히면 세포 내로 자유롭게 드나들던 Na^+ 이 차단되면서 세포 내의 이온 밸런스가 무너져 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세포 내의 미세한 변화가 시신경 세포를 거쳐 뇌까지 전달된다.



색깔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원추세포에는 ‘청원추세포’, ‘녹원추세포’, ‘적원추세포’의 세 종류가 있다. 이들은 각각 청색, 녹색, 적색의 빛을 주로 받아들이게끔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옆의 그래프에서처럼 각각의 원추세포는 흡수할 수 있는 색깔의 파장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녹원추세포와 적원추세포는 그 범위가 비슷하다. 같은 색깔이라 하더라도 원추세포가 그 색깔을 흡수하는 비율, 즉 흡광도는 각각의 원추세포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420nm(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파란색 계열의 빛이 망막에 들어올 때, 청원추세포의 흡광도는 100%이고, 녹원추세포와 적원추세포의 흡광도는 각각 10%와 0%이다. 세 원추세포들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흡광도는 시신경 세포를 통해 뇌로 전달된다. 그러면 뇌는 각 원추세포의 흡광도가 100:10:0의 비율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색깔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열쇠는 바로 각 원추세포가 받아들이는 흡광도의 조합 비율인 셈이다.

만일 색깔을 감지하는 원추세포 중 하나라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색깔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적원추세포가 없는 사람은 청색을 볼 수는 있지만, 같은 밝기의 적색과 녹색을 볼 때 녹원추세포만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 두 색깔을 같은 색깔로 인식해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적원추세포가 없는 사람이 신호등을 보게 되면 신호등의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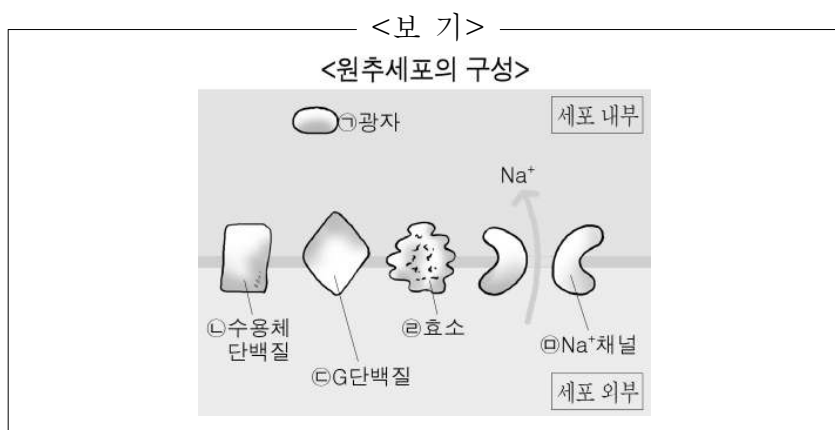
- ① 원추세포가 없으면 간상세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 ② 망막에 있는 원추세포는 막대 모양으로 생긴 시세포이다.
- ③ 각각의 원추세포의 흡광도는 빛의 명암에 따라 결정된다.
- ④ 뇌는 원추세포가 감지한 색깔 정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⑤ 청원추세포와 적원추세포가 감지하는 빛의 파장 범위는 같다.

21.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실험에서 ‘보통 쥐’가 가장 고르기 어려워했을 패널 구성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C 대학의 한 연구팀이 색깔에 따른 원추세포의 흡광도 분포가 사람과 비슷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청원추세포와 녹원추세포밖에 없는 쥐에게 유전자 조작을 실시해 적원추세포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쥐에게 같은 밝기의 컬러 패널 세 장 가운데 색깔이 다른 한 장을 구별하여 고르면 두유를 상으로 주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실험 쥐는 색깔이 다른 패널 한 장을 잘 구별하여 골랐지만, 보통 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 ① (녹) (청) (청)
- ② (녹) (청) (녹)
- ③ (청) (적) (청)
- ④ (적) (청) (적)
- ⑤ (녹) (적) (녹)

22. [A]를 참조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세포 내로 투과된 후 ㉡의 변화를 유발한다.
- ② ㉡은 ㉠과 충돌한 후 ㉢을 활성화시킨다.
- ③ ㉢은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 ㉣의 증식을 억제한다.
- ④ ㉣은 Na^+ 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에게 명령한다.
- ⑤ ㉢이 닫히면 세포 내의 이온 밸런스가 무너진다.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苦忘亂抽書
散漫還復整
曜靈忽西頽
江光搖林影
扶筇下中庭
矯首望雲嶺
漠漠炊烟生
蕭蕭原野冷
田家近秋穫
喜色動白井
鴉還天機熟
鷺立風標迥
我生獨何爲
宿願久相梗
無人語此懷
搖琴彈夜靜

잊음 많아 어지러이 책을 뺏아 놓았다가
이리저리 흩어진 책을 다시 정리하네.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강 빛에는 숲 그림자 흔들리누나.
막대 짚고 뜨락으로 내려가
고개 들고 구름 재를 바라다보네.
아득하게 밥 짓는 연기가 일고
으스스 산과 벌은 싸늘하구나.
농삿집 가을걷이 가까워지니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 돌아.
갈가마귀 날아드니 절기 익었고
해오라비 우뚝 서니 모습 흰칠해.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이 **희포**를 뉘에게 얘기할거나
거문고만 뚱뚱 탄다, 고요한 밤에.

- 이황, 「만보(晩步)」 -

(4)

아이 적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더니
그동안에 아이들이 나 웃을 줄 어이 알리
아이야 웃지 마라 나도 웃던 아이로다. <제 1수>

사람이 늙은 후에 거울이 원수로다.
마음이 젊었더니 옛 얼굴만 여겼더니
센 머리 썩건 양자* 보니 다 죽어야 하이야. <제 2수>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 하리
소년행락이 어제론 듯 하다마는
㉠ 어디가 이 얼굴 가지고 옛 내로다 하리오. <제 3수>
- 신계영, 「탄로가(嘆老歌)」 -

* 씹건 양자: ‘짹그린 얼굴’이라는 의미로 추측됨.

(다)

경복궁에 볼일이 생겨 들어설 때마다, 한가운데 높이 솟아 있는 국립 중앙 박물관의 돌층계부터 바라보게 된다. 반듯하게 누워 있는 가지런한 돌층계.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올라와 보라고 하는 것 같아, 자꾸 눈길이 끌린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지만, 돌층계가 날 시험해 보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층계가 시험해 볼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공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 평소의 내 생활 의식 때문이리라. 성실하지 못했던 생활 의식의 탓이 아니랴.

많은 층계를 우리는 밟고 오르며 산다. 층계를 밟고 오를 때마다 그것은 내게 삶의 계단으로 떠올라, 헛디딜세라 조심하게 된다. 어차피 인생은 끝이 있는 층계를 딛고 올라서며 사는 것이다. 한 층에 한 걸음이 맞도록 계단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두 단, 세 단씩 뛰어오르려는 충동을 느껴 왔었다. 이렇게 서두르거나 남보다 앞서려거나, 또는 남을 밀치고 먼저 나서려는 데서 헛딘는 실수나 넘어지는 확률은 커지게 마련이다. 한 층에 한 걸음, 한 발짝씩 밟아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런만, 두 층, 세 층을 한꺼번에 건너뛰어 뚫으려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 추락이나 도중 탈락, 도중 하차를 해 왔던가?

이제야, 내 삶의 계단을 얼마쯤 올라서서,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쯤인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수없이 많은 층계를 밟아 오르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차근차근 제대로 밟을 땀 흘렸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다리에 힘주고 무릎을 짚어 가면서 이마의 땀을 씻게 되니, 한 층, 한 층 올라 던고 서는 그 힘겨움에서 과연 얼마나 보람을 느꼈었는지 이제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얼마나 숨차게 헐떡이며 남을 밀쳤는지, 몇 번이나 헛디딜 뻔했는지, 또 뒤에서 남 보기에 흉하도록 갈 지(之)자로 왔다 갔다 했었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다.

어렸을 적, 고향의 돌층계에서 동무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누가 먼저 오르느냐를 놓고 싸움하듯이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도, 기울어져 비끼는 햇살에 그림자가 길어지면, 돌층계에 끼여진 그림자 밝기를 하면서 놀았었다. 누가 많이 이겨 돌층계에 먼저 올랐든 간에, 그림자가 길게 돌층계에 늘어지게 되면,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련 없이 내려와 그곳을 떠났었다.

지금 내 삶의 층계에서는, 앞으로 내 인생의 계단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다만, 인생의 해가 지게 되면 미련 없이 비껴서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밝게 되어 있는 층계 한 단씩을 딛고 밟아 올라서면서 ⑥ 다리가 무겁도록 힘이 들어도, 되도록 성실하게 내딛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결국 보람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유경환, 「돌층계」 -

2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을 돌아보는 글쓰이의 태도를 담고 있다.
- ② 자연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 ③ 욕심 없는 삶에 대한 다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욕구를 형상화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회포’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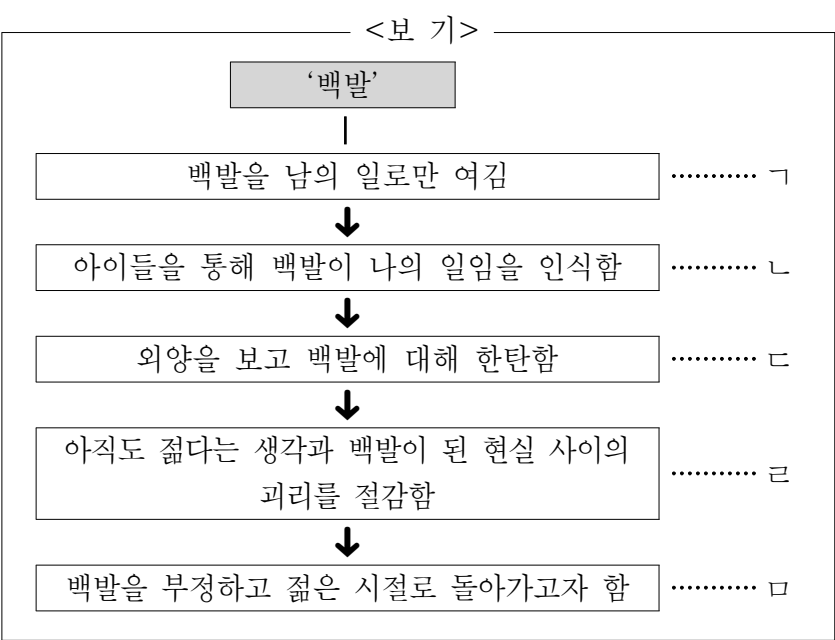
이황은 자연을 벗어나면서 끊임없이 학문 수양에 전념하려고 노력했다. 벼슬을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와 도산 서원을 세운 뒤 자신의 꿈을 담은 ‘도산십이곡’을 지었다.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고.

여기에서 ‘고인’은 이황이 본받고자 했던 ‘옛 성현’이나 ‘학문적 이상’을 의미하고, ‘가던 길’은 이황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 수양의 길’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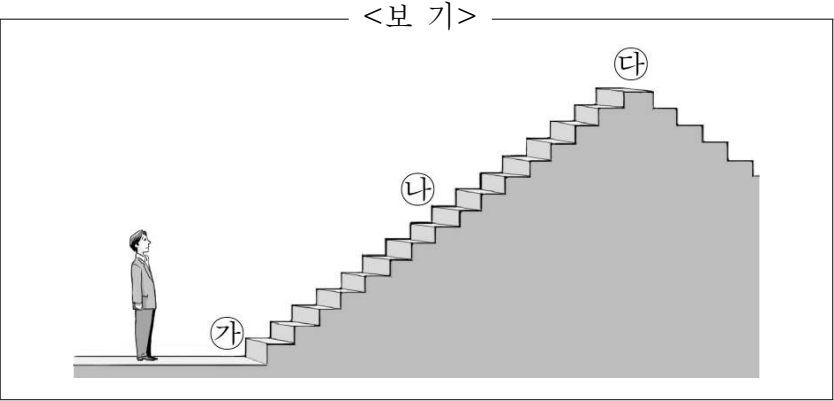
- ① 학문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에서 오는 회한을 의미한다.
- ② 학문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아쉬움을 의미한다.
- ③ 학문을 통해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의미한다.
- ④ 학문을 통해 옛 성현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 ⑤ 학문을 추구하다 자연을 벗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애석함을 의미한다.

25. <보기>는 ‘백발’에 대해 (나)의 화자가 보인 심리 변화의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ㄱ~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ㄴ

26. (다)를 읽은 후, 글쓴이의 생각에 따라 ‘내 인생의 계단’을 ㉠~㉢로 나누어 계획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성실하게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한다.
- ② ㉡: 성급하게 오르려고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 ③ ㉢: 오르지 못하더라도 남들과 함께 가는 것에 의미를 둔다.
- ④ ㉢: 누가 먼저 올라갔느냐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 ⑤ ㉢: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면 아무런 미련 없이 내려온다.

27. ㉠, ㉢에 담겨 있는 글쓴이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무상감이, ㉢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에는 무상감이, ㉢에는 자괴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에는 기대감이, ㉢에는 절망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에는 자부심이, ㉢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에는 자부심이, ㉢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채봉은 장필성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채봉의 어머니 이 부인은 둘을 약혼시킨다. 한편, 서울로 간 채봉의 아버지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돈을 주고 벼슬을 사서 참봉이 되고, 허 판서가 채봉을 별실로 삼으려고 하자 채봉을 데리러 평양으로 돌아온다. 채봉의 약혼 소식을 들은 김 참봉은 놀라면서 부인에게 자신이 벼슬하게 되었음을 전한다.

김 참봉 방으로 들어와 갓과 탕건을 벗어 부인을 주니, 부인이 받아 벽에 걸고 반겨 옆에 들어앉으며,

“아이고 반가워라. 올해 운수가 겹겹이 좋구려. 영감 초사(初仕)*를 하시고, 애기 혼인 정하고. 그런데 왜 혼인 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오?”

“우선 듣기가 급하니 말부터 하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대동문 밖에 사는 장 선천 부사의 아들과 정혼하였도요.”

“장 선천 부사의 아들과 정혼하였어? 그 거지 다 된 거 하고? 흥! 기막힌 사위를 정하고 내려왔으니 애기를 데리고 우리 서울로 올라가서 삼시다.”

이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기막힌 사위가 어떠한 거란 말이오?”

하고 묻는다. 김 참봉 은근히 허풍을 친다.

“흥, 알면 곧 기가 막히지. 누구인고 하니 이 천지에 세도하는 사직골 허 판서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한편 끔찍하고 한편 기가 막혀 다시 묻는다.

“허 판서면 정실이란 말이오? 부실이란 말이오?”

“정실도 아니요, 부실도 아니요, 별실이라요.”

“나는 그러지 못하겠소, 허 판서 아니라 허 의정이라도.”

“왜 못 해!”

“영감도 서울 가시더니 마음이 변하셨구려. 예전에는 평생 말씀이 저같이 얹전한 신랑을 택해서 슬하에 두고 걱정 근심이나 아니 시키자고 하시더니 오늘 이게 무슨 말이오? 그래, 그것을 금지옥엽(金枝玉葉)같이 길러서 남의 첩으로 준단 말이오?”

“㉠ 허허, 아무리 남의 첩이 되더라도 호강만 하고 몸 편하였으면 좋지.”

“남의 눈에 가시가 되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데, 나는 죽어도 그런 호강을 아니 시키겠소.”

김 참봉이 이 말을 듣고 열이 번쩍 나서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를 한다.

“그래 그런 자리가 싫어? 저런 복 찰 것 보았나. 판소리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보아. 우선 춤출 일이 있으니.”

“무엇이 그런 좋은 일이 있어 춤을 춘단 말이오?”

“내가 백두(白頭)*로 늙을 것을 우선 허 판서의 주선으로 출력*을 하였지. 또 내일 모레 과친 현감을 할 터이니, 채봉이가 그리 들어가 살면 제 평생도 좋거니와, 나한테는 감사도 있고 참판도 있고 판서도 할 수 있은즉, 그때는 마누라가 정경부인(貞敬夫人)은 떼어 놓은 당상(堂上)이니 이런 경사 어디 있소? 두말 말고 데리고 올라갑시다.”

(중략)

김 참봉이 다시 채봉을 보고,

“아가, 너 재상(宰相)의 별실이 좋으나, 여염집 부인이 좋으나? 네 소원대로 말해 보아라.”

채봉이가 예사 여염집 처녀 같으면 이런 말에 대하여 아무리 부모의 말일지라도 무엇이라고 대꾸하며 대답하겠지 마는, 채봉은 원래 학식도 있고 필성의 일이 잠시도 잊혀지지 아니할 뿐더러 부모의 하는 말을 들은 터이라, 자세를 가다듬고 대답하되,

[B]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뒷가 되기는 원이 아니올시다.”

“허허! 그 자식 내가 남의 별실 구경을 못 해서 이런 소리를 하나 보다마는, 별실이야 참,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은 또 없느니라.”

이 부인이 말을 가로막아 김 참봉을 쳐다보며,

“영감은 어린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하시는지구려. 계집의 자식이란 것은 바깥 부모의 하시는 대로 좇아가는 법이지. 아가, 너는 네 방으로 가거라.”

채봉을 보내고 두 내외가 서울로 올라갈 의논을 하고, 그날로 집안 살림을 처분하고 상경할 행장을 차리니라.

이때 채봉이 초당으로 나와 필성의 일을 생각하고 홀로 탄식하되,

“부운 같은 이 세상에 부귀공명(富貴功名)이 무엇인고.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던 우리 부모가 하루아침에 나로 하여금 신의를 배반하고 천첩의 몸이 되게 하려 하니 가엾고 한심한 일이고구나. 부모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 그러하거니와, 나는 여자의 몸이 되어 한번 허락한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여, 잠깐 동안 부모의 근심을 끼칠지라도 내 몸이나 불의지 죄(不義之罪)를 면하리라.”

하는데,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이윽고 한 피를 생각하고 취향을 대하여,

“이애, 취향아! 내가 너를 몇 해 동안 친형제같이 알고 지낸 터이어나와, 내 억울한 사정을 알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장생과의 일은 너도 아는 바이어나와, 아무리 부모의 분부인들 그런 중한 언약을 오늘날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글쎄올시다. 당초에 서울서 정혼을 하고 오시더라도 퇴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던 마님까지 마음이 변하였으니, 아마 소저는 서울 마나님이 꼭 되는 길밖에 없나 봅시다. 그러나 소저는 올라가시면 그만이지마는 나는 이 바닥에서 살며 장생을 무슨 낮으로 봅니까.”

채봉이 이 말을 듣더니,

“아예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다.”

하고 취향의 귀에 입을 대고 무슨 비밀한 말을 하고, 다시 말을 하고, 다시 말을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가다가 도중에 몸을 피할 터이니, 너는 어멈하고 뒤를 밟아 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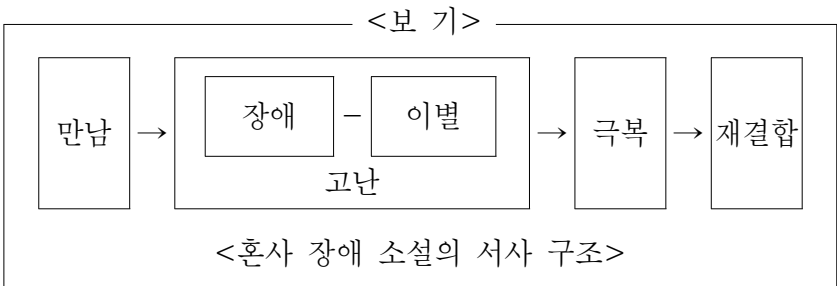
취향이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그러시면 참봉님과 마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소저 생각이 그러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 * 초사: 처음으로 베풀함. 또는 그 베풀
- * 백두: 지체는 높으나 베풀하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
- * 출력: 어떤 일에 필요한 돈이나 물자 따위를 내놓음. 여기서는 돈으로 베풀 사는 것을 의미함.

28. 위 작품이 <보기>의 구조를 따른다고 할 때,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취향은 채봉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군.
- ② 김 참봉의 상경 결정으로 채봉과 필성이 이별하게 되겠군.
- ③ 김 참봉은 채봉과 필성의 만남에 대해 몰랐었군.
- ④ 채봉이 겪는 장애는 그녀의 부모에 의한 것이겠군.
- ⑤ 필성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보아 채봉은 필성과 재결합하겠군.

29.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나타난 변화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이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 ③ 인물들의 처지가 서로 역전되고 있다.
- ④ 서술자의 서술 시점이 달라지고 있다.
- ⑤ 계절적 배경이 달라지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할 때,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대성’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에서 ‘근대성’은 인물이 타인 또는 사회와 개별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으로 흔히 나타난다. 그리고 이 ‘근대성’은 사회적 관습이나 지배적 이념의 구속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 ① 채봉을 따르는 취향의 모습을 통해 믿음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스스로 선택한 사랑을 이루려는 채봉을 통해 주체적 인물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사회적 관습에 따라 딸의 혼처를 정한 김 참봉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적 사회가 부각되고 있다.
- ④ 김 참봉과 허 판서가 돈으로 베풀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당시 신분제의 균열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이 부인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웃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타인과 맺는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1. ㉠에 나타난 ‘김 참봉’의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기 보고 칼 뽑는 격이군.
- ② 선무당이 장구 탓한다더니.
- ③ 방귀 똥 사람이 성내는 꼴이군.
- ④ 우물에 가서 송냥 찾는 격이군.
- 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사람에 의한 지배’는 결국 군주나 소수의 귀족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대 법치주의자들은 사람에 의한 지배를 ‘법의 지배’로 바꾸려 했다. 이들은 기존의 법이란 군주의 자의적 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의 명령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으로 간주하였다.
- (나) 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법을 제정, 집행, 판결하는 자를 각각 분리하였다.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재판도 법에 따라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초창기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확립된 법에 따른 법의 제정과 적용을 중시했기 때문에, 법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내용적 측면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타났다.
- (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법의 내용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떤 내용의 법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런 법치관은 의도적으로 인권을 짓밟는 비민주적·권위적 정권도 표방할 수 있다. 비민주적·권위적 정부가 기존의 법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감행하고자 할 경우 법 형식을 갖춰 의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의 지배이지 좋은 내용의 법의 지배가 아닌 것이다.
- (라) 이 법치관에서는 법의 내용적 요소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법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이 형식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엄격히 집행된다면 이러한 상태는 일반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이처럼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는다.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서 모든 국민들을 공평하게 대우한 셈이므로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롭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법치주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흔히 법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강조한, 법의 공평한 집행이 이처럼 명백하게 부정의를 낳는 경우를 ‘**형식적 법치의 역설**’이라고 한다.
- (마)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요소만으로는 ‘법의 지배’의 타당성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 또한 인간 존엄과 정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2.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근대 법치주의의 등장 배경
- ② (나): 초창기 법치주의의 특징
- ③ (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목적
- ④ (라):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 ⑤ (마): 현대 법치주의의 지향점

33.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사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례 1] A국은 ‘옴’과 ‘멘옴’이라는 신분적 구별이 있다. ‘옴’은 자본력과 문화적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A국은 입법·행정·사법권을 분립시키고 있으나 이 기관들은 ‘옴’에게 독점되고 있다.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옴’은 ‘멘옴’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멘옴’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례 2] B국의 ‘갑’은 추운 겨울 밤 이웃 사람인 ‘을’이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긴급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을’을 방치하고 집에 갔다. 결국 ‘을’은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B국의 사법부는,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①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A국에서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 ②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A국이 ‘멘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한다.
- ③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B국의 사법부가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 ④ 오늘날의 법치주의자는 A국이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멘옴’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⑤ 오늘날의 법치주의자는 B국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34. 위 글의 논지를 따를 때, ‘형식적 법치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의견은?

- ① 법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한 법은 지켜야 한다.
- ② 법이 정의로운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지닐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
- ③ 법이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부합하는 내용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법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는 시각적 원리로 구성되는 하나의 예술 장르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 이론가인 스테판 샤프는 영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비판하면서, 촬영 기법과 장면의 유기적 배열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영화를 ‘숏’ 단위로 분석하여, 인물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로 분리 병치, 다중 변각, 모화면 등을 제시하였다.

분리 병치란 화면에 피사체들을 하나씩 번갈아 보여주는 숏의 배열을 말한다. 즉 대화 중인 A, B 두 사람이 피사체일 때, 한 화면에 한 사람씩 A, B, A, B와 같은 순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앞 좌석에 두 인물이 앉아 있을 때, 왼쪽 인물의 우측 모습을 보여 주고 다음 화면에 옆에 있는 인물의 좌측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리 병치를 활용하면 피사체 각각의 정서나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 때 관객은 분리된 두 화면을 하나의 장면으로 인식하게 된다.

㉠ 다중 변각이란 서로 다른 시점으로 하나의 피사체를 촬영하여 얻은 숏을 불규칙하게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 변각의 목적은, 긴 장면에서 관객의 지루함을 덜고, 동일 피사체를 다양한 각도로 보여 줌으로써 그 피사체를 입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다중 변각은 한 장소 내의 대상을 다양하게 연출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춤을 추는 장면에서 행위의 입체감과 역동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인물의 전체적인 행위를 보여 주기보다는 인물의 팔, 다리 등의 각 부위를 여러 각도로 클로즈업한 숏을 불규칙하게 배열하면 연출자가 의도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모화면이란 원거리 촬영을 통해 사건 전체를 포착한 숏을 말한다. 모화면은 사건이 부드럽게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한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 두 번쯤 다시 설정된다. 중간에 모화면을 재설정하는 이유는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모화면은 분리 병치나 다중 변각과 같은 구성 요소들과 적절하게 배열되어 연출자가 의도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게 해 준다.

스테판 샤프는 영화 창조 과정을 통해 영화의 미학적 본질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그는 “영화가 그 자신의 미적 체계와 조화의 법칙을 가진 하나의 예술임을 정의할 수 있는 시각적 구조에 대한 원리들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영화 형식의 탁월함이 내용의 표현을 위한 최상의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시각적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규칙을 연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화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숏: 카메라가 한 번 촬영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연속된 한 화면 단위

35.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스테판 샤프’의 영화관과 가장 가까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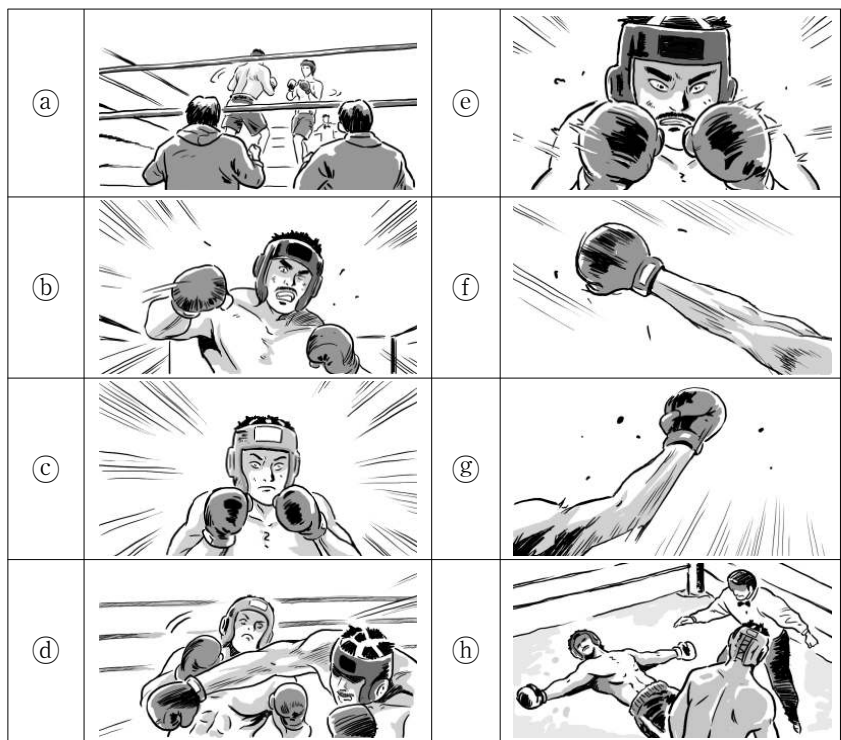
- ① 영화는 대상을 기계적으로 재현하고 현실화할 뿐이다.
- ② 영화는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③ 영화는 여러 시각적 형식들이 적절하게 구조화된 하나의 예술이다.
- ④ 영화는 세계에 관한 사상(思想)과 전망을 설명하는 하나의 매체이다.
- ⑤ 영화는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 사실적인 재현력이 높아갈수록 예술성에서 멀어진다.

36. 위 글을 바탕으로 ㉠과 관련된 사항을 바르게 고른 것은?

- <보 기> -	
㉠. 원거리 촬영	㉡. 사건의 자연스러운 연결
㉢. 다양한 시점의 사용	㉣. 불규칙 배열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7. 다음은 영화 콘티의 일부분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하나의 사건 전체를 포착하기 위한 모화면으로 설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군.
- ② ㉡ ~ ㉢은 등장인물들을 번갈아 보여 줌으로써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세밀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군.
- ③ ㉣은, 등장인물들의 행위가 다시 한 장면에 포착된 점으로 보아, 사건이 종료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군.
- ④ ㉤ ~ ㉥에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촬영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위를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군.
- ㉦는 사건의 흐름을 알려주기 위해 재설정된 모화면으로 볼 수 있겠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떠돌이 노동자인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먹고 떠나는 중에 우연히 교도소 출신의 떠돌이 노동자 정씨를 만난다. 두 사람은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향하는 길에 술집에서 일하다 도망쳐 나온 백화를 만나 동행하게 된다.

(가)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의 얼어붙은 개천 위에 물오리들이 종종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굴뚝에서 매캐한 청솔 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려 왔다. 영달이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허기가 저서 속이 떨려요. 감천엔 어차피 밤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 뭇 좀 얻어먹구 갑시다.”

“여긴 바닥이 작아 주막이나 가게두 없는 거 같군.”

“어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죠.”

㉠ 백화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간신히 발을 떼면서 말했다.

“온몸이 얼었어. 밥은 고사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이구 갔으면.”

정씨가 두 사람을 재촉했다.

“얼른 지나가지. 여기서 지체하면 하룻밤 자게 될 테니. 감천엘 가면 하숙도 있구, 우리를 태울 기차두 있단 말요.”

(나)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을 지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 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 칸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달이가 폐가 안을 기웃해 보며 말했다.

“저기서 신발이라두 말리구 갑시다.”

㉡ 백화가 먼저 그 집의 눈 쌓인 마당으로 걸뚝이며 들어섰다. 안방과 건넌방의 구들장은 모두 주저앉았으나 봉당은 매끈하고 탄탄한 흙바닥이 그런대로 쉬어 가기에 알맞았다. 정씨도 그들을 따라 처마 밑에 가서 엉겨주춤 서 있었다.

㉢ 영달이는 흙벽 틈에 뼈죽이 솟은 나무막대나 문짝, 선반 등속의 땀 만한 것들을 끌어 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 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 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달이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 가며 입김을 불어 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댁에.....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네요, 불 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정씨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영달이에게 말했다.

“저런 무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다) “들어 봐요. 사실은 그 여덟 사람이 모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백화는 주점 ‘**갈매기집**’에서의 나날을 생각했다. 그 여자

는 날마다 텃마루에 걸터앉아서 철조망의 네 귀퉁이에 높다란 망루가 서 있는 군대 감옥을 올려다보았던 것이다. 언덕 위에 흰 뽕끼로 칠한 반달형 퀘셋 막사와 바라크가 들어서 있었고 주위에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어, 그 안에 철창이 있고 죄지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씩, 긴 구령 소리에 맞춰서 붉은 줄을 친 군복에 박박 깎인 머리의 군 죄수들이 바깥으로 몰려나왔다. 죄수들이 일렬로 서서 세면과 용변을 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간혹 대여섯 명씩 무장 헌병의 감시를 받으며 마을로 작업을 하러 내려오는 때도 있었다. 등에 커다란 광주리를 메고 고개를 숙인 채로 그들은 줄을 지어 걸어왔다.

“처음에 부산에서 잘못 소개를 받아 술집으로 팔렸었지요. 거기에 갔을 땐 벌써 될 대루 되라는 식이어서 겁나는 것 두 없었구요, 나이는 어렸지만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 두 깨달았던 말예요.”

어느 날 그들은 마을의 제방공사를 돕기 위해서 삼십여 명이 내려왔다. 출감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라 성깔도 부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리 경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밖으로 작업을 나오면 기를 쓰고 찾는 것은 물론 담배였다. 백화는 담배 두 갑을 사서 그들 중의 얼굴이 해사한 죄수에게 쥐어 주었다. 작업하는 열흘간 백화는 그들의 담배를 댔다. 날마다 그 어려 보이는 죄수의 손에 몰래 쥐어 주곤 했다. 다음부터 백화는 음식을 장만해서 감옥 면회실로 그를 만나러 갔다.

(라)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집에 있던 시절, 옷 한 가지도 못 해 입었다.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삼 년 중에서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그 여자는 새로운 병사를 먼 전속지로 떠나보내는 아침마다 **차부**로 나가서 먼지 속에 버스가 가리울 때까지 서 있곤 했었다. 백화는 그 뒤부터 부대 근처를 전전하며 여러 고장을 홀러 다녔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 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꺾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자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 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 이윽히: 한참 동안. 꽤 오래도록

* 사위: 사망의 둘째

* 깃: 새의 보금자리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결한 문체를 통해 사건 전개에 박진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회상의 형식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통해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39. (가)~(라)에 등장하는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감천’은 세 사람의 중간 목적지가 되는 공간이다.
- ② (가)의 ‘들창 안’은 세 사람과 단절된 공간이다.
- ③ (나)의 ‘폐가’는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④ (다)의 ‘갈매기집’은 백화에게, 고달프지만 마음이 평화로운 공간이다.
- ⑤ (라)의 ‘차부’는 백화가 이별의 괴로움에 절망하는 공간이다.

40.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 <보 기> —

소설에서 화자는 사건을 말하는 자이고, 초점화자는 사건을 바라보는 자이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에서는 초점화자가 인물과 긴밀한 상태에서 그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화자의 목소리에 초점화자의 눈길을 은밀히 삽입시킴으로써, 인물의 내면을 탄력적으로 제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1. <보기>를 통해 (다)~(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은 대화(의사소통)를 통해 타인과 세상을 이해한다. 즉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인식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소설 속 인물들 역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데, 대화 과정에서 각 인물들은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알아간다.

한편 조셉 루프트와 해링톤 인그램은 개인적 자아를 ‘공개된 자아(open self)’, ‘가려진 자아(blind self)’, ‘감춰진 자아(hidden self)’, ‘미지의 자아(unknown self)’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라)에 적용하면 백화의 이야기는 다음 표로 설명할 수 있다.

	백화가 아는 것	백화가 모르는 것
영달, 정씨가 아는 것	공개된 자아	가려진 자아
영달, 정씨가 모르는 것	감춰진 자아	미지의 자아

- ① 백화는 군대 감옥 근처에 있던 갈매기집에서 지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미지의 자아’를 축소하고 있다.
- ② 백화는 막연한 두려움에 군 죄수를 무서워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 ③ 백화는 헌신적으로 군 죄수를 옥바라지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 ④ 백화는 옷 한 벌 못 사 입어도 행복했던 ‘가려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 ⑤ 백화는 여러 고장을 떠돌았던 ‘가려진 자아’를 표현하여 ‘미지의 자아’를 축소하고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삼단논법은 형식적으로 보통 두 개의 전제와 한 개의 결론, 즉 세 개의 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모든 사람은 죽는다.’(전제1),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전제2)에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결론)를 ㉠ 이끌어내는 식이다. 여기에서 전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생략삼단논법’이라 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전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전제를 생략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제가 ‘확실한 지표’이거나 ‘일반적 통념’일 때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지식이 ‘확실한 지표’이다. 가령 ‘물은 1기압일 때, 100℃에서 끓는다.’와 ‘지금은 1기압이고 물은 100℃이다.’에서 ‘그러므로 지금 물이 끓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물은 1기압일 때, 100℃에서 끓는다.’를 생략하고 ‘지금 1기압이고 물이 100℃이니, 물이 끓을 거야.’라고만 해도 된다. 왜냐하면 ‘물은 1기압일 때, 100℃에서 끓는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에 굳이 ㉡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 ‘일반적 통념’도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나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산다.’와 같이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 받아들이는 상식이 ‘일반적 통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보편타당하지는 않지만 ‘사실이 됨직한 것’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전제들은 ‘확실한 지표’와 같이 ‘절대적’이라고 ㉤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이 그림은 명작이다. 그래서 가격이 높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 문장은 ‘모든 명작은 가격이 높다. 이 그림은 명작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가격이 높다.’라는 삼단논법에서 ‘모든 명작은 가격이 높다.’라는 전제를 생략한 것이다. 이 전제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속담, 격언에는 ‘확실한 지표’나 ‘일반적 통념’을 생략한 삼단논법이 흔히 사용된다. 짧은 문구 안에 논증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확실한 지표’나 ‘일반적 통념’인 전제를 생략하면 누구나 ㉥ 아는 진부한 내용을 반복하는 데에서 오는 싫증을 덜어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맛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 더 강렬하고 생기 있게 된다. 한편 광고에서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전제를 오히려 생략하여, 그것을 사람들이 마치 ‘확실한 지표’나 ‘일반적 통념’처럼 생각하게 하는 기법으로 생략삼단논법을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4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전제는 생략 가능하다.
- ② ‘확실한 지표’는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다.
- ③ 생략삼단논법은 논증 과정에서의 모순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 ④ ‘일반적 통념’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 ⑤ 사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43. <보기>는 어느 광고문을 분석한 결과와 그에 대한 반응이다. 위 글로 보아 ㄱ~ㄴ 중 적절한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광고문>
“나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좋아하고, 내 얼굴은 ○○○ 제품을 좋아한다.”

- 어느 화장품 광고에서 -

<분석>
[전제 1] 나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좋아한다.
[전제 2] ○○○ 제품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다.
[결 론] 그러므로 내 얼굴은 ○○○ 제품을 좋아한다.

<반응>
ㄱ. [전제 2] 대신 [전제 1]을 생략하면 [결론]은 확실한 지표가 되겠군.
ㄴ. [전제 2]는 누구나 아는 진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기 위해 생략되었군.
ㄷ. [전제 2]를 ‘확실한 지표’나 ‘일반적 통념’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누구나 인정하는 당연한 사실로 여기게 했군.
ㄹ. 강조하고자 하는 [전제 2]를 숨기는 방식으로 생략삼단논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4.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	생략된 전제
①	오늘 말을 잘 들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 줄게.	말을 잘 들으면 상을 준다.
②	오늘 달리기를 했으니까, 건강해질 거야.	운동은 건강에 좋다.
③	감기에 걸려서 입맛이 없구나.	병에 걸리면 입맛이 없어진다.
④	오늘 사과를 많이 먹었으니 피부가 좋아질 거야.	과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⑤	탁구공을 손에서 놓으면, 아래로 떨어져.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45.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도출(導出)하는 ② ㉡: 언급(言及)할
- ③ ㉢: 수용(受容)하는 ④ ㉣: 단언(斷言)할
- ⑤ ㉥: 직시(直視)하는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